

#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인과관계 연구: 미국의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 참여자를 대상으로\*

A Causal Relation of Employment and Depression among Low-  
Income Young Mothers in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

시카고 대학 체이픈홀 아동연구소  
연구원 진미정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Researcher : Meejung Chi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a causal relation between employment and depression among low-income young mothers who participated in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NC). Using baseline and first follow-up interview data from NC study, this study selected 756 young mothers who were at risk of depression and unemployed at baseline. About 18% of them were employed and 45% of them were no longer at risk of depression at the first follow-up interview. The young mothers' grade level and their race/ethnicit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number of weeks employed between the two time points and employment at the 1st follow-up interview. It was also found that employ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t the 1st follow-up interview. These findings imply that employment can ameliorate depressive symptoms of low-income young mothers.

**주제어(Key Words):** 저소득층(low-income), 취업(employment), 우울 증세 (depression)

Corresponding Author: Meejung Chin, Ph.D.,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1313 E. 60th Street, Chicago, IL 60637. USA Tel: 011-773-256-5148 Fax: 011-773-256-5348 Email: chin@uchicago.edu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MDRC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한 자료들 중의 일부임. 자료의 사용과 해석은 저자의 책임이며, MDRC나 저자가 속한 기관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

## I. 서론

우울 증세는 개인의 심리적 복지와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우울 증세는 모든 인구집단에서 나타나지만, 증세가 여성에게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경험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은 이중적으로 우울증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어머니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의 정신 건강과 행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머니들의 우울 증세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Downey & Coyne, 1990; Hofferth, Smith, McLoyd, & Finkelstein, 2000; Jackson, Brooks-Gunn, Huang, & Glassman, 2000).

최근 미국에서는 사회 복지정책의 틀이 전폭적으로 변화되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심리적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우울 증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복지수당에 의지하는 대신, 취업을 통해 자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취업을 하지 않거나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복지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학자들은 이러한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취업을 강요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Danziger, Corcoran, Danziger, Heflin, Kalil, Levine, Losen, Seefeldt, Siefert, Tolam, 2000). 복지수당을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우울 증세가 높은 비율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생활을 계속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Kalil, Schweingruber, & Seefeldt,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 자료에 기반하고 있

기 때문에 우울 증세와 취업과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미국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저소득층 여성의 우울 증세가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지, 반대로 실업상태가 우울 증세를 가져오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종단 연구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Ginexi et al., 2000; Holmes & Wervel, 1992; Jayakody, Danziger, & Kessler, 1998), 이들 연구는 일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취업경험이 적고 인적 자원이 열악하여 취업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지 분명치 않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상의 한계는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우울 증세에 관한 연구들이 횡단적 연구자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 증세와 관련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가 불명확하다(박정희·유영주, 1999; 최규련, 1999, 2000).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방법론적인 한계점은 비교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우울 증세를 계량화하는 경우, 증세의 경향을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 또는 집단내 종단적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많은 연구들이 종단적인 비교나 집단 간 비교를 하는 대신 척도의 중간값을 기준점으로 선택한다. 이러한 비교는 척도의 중간값이 우울 증세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우울 증세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저소득층 여성들의 우울 증세와 취업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수집된 종단적 연구자료인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를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이 미국의 저소득층 여성 중에서도, 십대에 첫 출산을 한 이십대 초반의 어머니들이므로 연구결과를 한국적 상황

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우울 증세와 취업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II. 선행 연구 고찰

### 1. 저소득층의 정신 건강 문제

우울 증세를 비롯한 각종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연구 및 우리 나라의 연구에서 모두 우울 증세나 소외감, 디스트레스 등의 정신 건강 지표는 저소득층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경신·김오남, 1998; 조희선, 1991; 최규련, 2000; Dohrenwend, Levav, Shrout, Schwartz, Link, Skodol, & Stueve, 1992; Kessler, 1982).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이론, 즉 사회적 도태이론(social selection)과 사회적 원인이론(social causation)이 제시된 바 있다. 사회적 도태이론에서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 하류 계층으로 도태되어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즉 저소득층에서 발견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유전학적인 배경으로 귀인된다. 한편 사회적 원인이론에서는 저소득층 인구가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나 경제적 문제 등이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도태이론에서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선행된다고 보는 반면, 사회적 원인이론에서는 저소득층으로서의 사회적 불이익이 정신건강에 선행된다고 주장한다.

Dohrenwend와 동료들(Dohrenwend et al., 1992)은 제 삼의 외생변수 즉 인종/민족 배경을 도입하여 이 두 가지 이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두 집단, 즉 유럽출신 유대인과 북아프리카출신 유대인을 비교하여 계층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럽출신 유대인이 북아프리카출신 유대인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hrenwend의 가설에 따르면, 각 사회계층 내에서 어떤 인종/민족 배경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느냐를 조사함으로써 각 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 즉 유럽출신 집단에게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되면 이는 사회적 도태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북아프리카출신 집단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면 사회적 원인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같은 저소득층 내에서 비교했을 때, 유럽출신 유대인들 사이에 정신건강 문제가 더 만연하면 이를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원인에 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는, 정신분열 증세는 유럽 출신 집단에게서 더 만연하고, 우울 증세는 북아프리카 출신 집단에게서 더 만연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정신 분열 증세는 사회적 도태이론으로 우울 증세는 사회적 원인이론으로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만약 사회적 도태이론이 저소득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이라면, 저소득층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울 증세를 치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직업훈련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Dohrenwend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우울 증세가 사회적 조건과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2. 취업지위와 우울 증세

취업지위와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의 연구는 실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들 연구는 비규범적 사건으로서의 실적이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실직은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역할 관계의 재조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높은 스트레

스와 우울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된다(성혜영·조희선, 1999; 최규련, 1999; Kessler, House, & Turner, 1987).

두 번째 범주의 연구는 취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제반 특성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은 주로 직업과 관련된 특성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정문자·이미리, 2000), 혹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간의 심리적 복지를 비교한다(정문자·이미리·어주경, 1998; Parry, 1986).

세 번째 범주의 연구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 혹은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의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Jayakody, Danziger, & Kessler(1998)는 25-54세의 미국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6세 이전에 시작된 정신건강 문제가 이후 학업성취, 결혼, 실업상태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문제가 취업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복지수당을 받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연구들도 우울 증세를 포함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다른 장애요인들(자녀의 건강 문제, 육아 문제, 취업 경험 및 기술 부족 등)과 더불어 이들 집단의 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Danziger et al, 1998; Kalil et al, 2001).

미국에서는 1996년 새로운 복지제도(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복지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주 정부에 따라 실제적인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처음 복지수당을 받기 시작하여 2년 내에 취업을 하든지, 취업과 관련된 활동(예, 직업훈련)을 하지 않으면 복지수당이 취소된다. 또한 평생에 걸쳐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았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취업을 통한 자립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른 한 편, 우울 증세가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선행되기보다는 실직의 결과이며, (재)취업이 우울 증

세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Ginexi, Howe, & Caplan(2000)은 실직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12개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우울 증세, 내외통제성과 재취업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직 후 6개월 이내의 재취업은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내적 통제 성향은 재취업의 시기를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울 증세가 재취업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되어 우울 증세가 취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서 선행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Vinokur, Schul, Vuori, & Price(2000)도 직업훈련 프로그램(JOBS)에 참여한 저소득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우울 증세가 2년 후 취업여부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과 정신건강간의 인과관계를 본다는 점에서 세 번째 범주의 연구에 포함된다.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의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원인이론과 사회적 도태이론을 간접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취업하기 힘든 집단인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과 우울 증세의 상호관계를 밝혀 관련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3. 취업지위와 우울 증세의 관련 변수

취업과 우울 증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횡단적인 연구자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취업과 우울 증세가 양방향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이미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현될 경우 학업이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ayakody et al, 1998). 반대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오랫동안 실직상태에 있다면 우울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양방향적인 인과관계 뿐 아니라, 취업과 우울 증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외생변수도 방법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우울 증세에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자존감 같은 심리적 자원이나 학력수준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은 취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 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제 3의 외생변수들을 연구 모형 속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통계상의 관계가 실제 관계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발견되기 쉽다.

선행연구들은 자존감과 내적 통제성향 등의 심리적 자원이 취업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들은, 실직 후 재취업을 빨리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적 통제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 내적 통제성향이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다(Ginexi et al., 2000; Holmes & Wewel, 1992; Vinokur et al., 2000). 또한 서구의 연구와 우리나라 연구에서 모두 자존감과 내적 통제성향 등의 심리적 자원은 우울 증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된다(김경신·김오남, 1998; 박정희·유영주, 1999; 최규련, 2000; Ennis et al., 2001; Turner, Sorenson, & Turner, 2000). 자존감이 높은 경우 우울 증세가 낮으며, 자기 자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삶의 여건을 자신의 행동이나 자원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내적 통제성향을 가진 경우 우울 증세가 낮다.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등의 인적 자원은 여성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조유현, 1998; 정순희, 2001).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적 자원은 우울 증세를 비롯한 심리적 복지 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신수아·옥선화, 2001; Kessler, 1982).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은 우울 증세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Taylor, Robers, & Jacobson, 1997; Ulbrich, Warheit, & Zimmerman, 1989). 특히 저소득층은 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Polit, London, & Martinez, 2001), 건강상의 문제가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리라 예상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수, 막내 자녀의 연령, 부

모의 교육 수준, 가족 형태 등의 가족관련 특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하기가 어렵고, 이미 취업한 경우에도 역할갈등이 높아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조유현, 1998; 정순희, 2001).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취업률이 높다(Greenwell, Leibowitz, & Kleman, 1998). 한편 가족 형태, 즉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가족의 수입자원과 시간자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Folk,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우울 증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모형 안에 포함시켰다. 첫째 심리학적 인 자원으로 자존감과 내외통제성 경향을 포함시켰으며, 둘째 개인의 인적 자원으로 학력 수준, 건강상태, 초산연령, 인종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련 변인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부모의 학력수준,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어머니와의 동거여부,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와의 동거여부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관련변수들은 그 개별적 영향력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울 증세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통제되는 데 목적이 있다.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우울 증세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인과관계의 방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선행되는 지를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사건으로서의 취업은 그 시작시기와 종결시기가 비교적 쉽게 관찰되지만, 우울 증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 변화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적해내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가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여부와 우울 증세는 같은 시기에 조사되었다. 따라

서 취업하기 직전에 우울 증세가 호전되어 취업을 가능하게 했는지, 아니면 취업으로 인해 우울 증세가 변화되었는지를 시기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시간상의 차이에 주목하는 대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우울 증세를 통제하고 취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 관찰 당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취업상태인 20대 저소득층 여성들을 선택하여 18개월 후 이들의 취업여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울 증세가 있는 여성들만을 선정함으로써 우울 증세가 이후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취업 변수가 18개월 이후의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은 심리적 자원, 개인의 인적 자원, 가족관련 변수에 영향을 받는가?

〈연구 문제 2〉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층 여성의 우울 증세는 취업상태에 영향을 받는가?

## 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실시된 New Chance Demonstration Study의 연구자료를 이용하였다. New Chance Demonstration은 1989-1992년 사이에 미국의 16개 장소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복지 프로그램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이다. 십대에 첫 자녀를 출산한 16-22세 사이의 저소득층 여성과 그 자녀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교육, 생활교육, 부모교육, 상담, 가족계획 교육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일년 이상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프로그램 시작 후 18개월, 42개월이 되었을 때까지 종단적으로 추적하며 평가하였다(Quint, Bos, & Polit, 1997).

총 2,322명이 New Chance Demonstration에 자원하여 무작위로 프로그램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요건은 (1) 연령이 16-22세이며 (2) 19세 이전에 첫 자녀를 출산하고 (3) 복지수당(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을 받고 있으며 (4)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고 (5) 참여당시 임신중이 아닐 것이었다. 이러한 자격요건에서 드러나듯이, New Chance Study는 미국에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8개월째 실시된 첫 번째 후속연구에 2,088명이 참여하였고 (89.9% 응답률), 다시 2,079명이 42개월째 실시된 두 번째 후속연구에 참여하였다(89.5% 응답률). 본 연구에서는 처음 프로그램 참여자료와 첫 번째 후속연구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연구에 모두 참여한 총 2,088명 중 프로그램 참여 당시 미취업상태였으며, 우울 증세가 있었던 여성 75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연구 척도

### 1) 우울 증세

우울 증세는 임상연구가 아니라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개발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이용하여 검사되었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과 관련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물어보는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자들은 0점(하루 미만)에서 3점(5일에서 7일)의 응답범주를 가진 리커트형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응답점수 범주는 0-60점이며, 일반적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6점 미만의 점수는 우울 증세가 없는 것으로, 16점 이상이면 우울 증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도 16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1의 값을, 16점 미만이면 0의 값을 주어 우울 증세를 가변수화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CES-D는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가 아니라 일반인구 중에서 우울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보고식의 척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CES-D에서 발견된 우울 증세와 임상적 우울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자들

은 CES-D가 우울 증세를 발견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도구로 보고하고 있다 (Gotlib, Lewinsohn, & Seeley, 1995).

실제로 Gotlib et al. (1995)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상적 우울 진단과 CES-D를 비교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CES-D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임상적으로도 우울 진단을 받은 집단(true positive), CES-D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임상적으로는 우울 진단을 받지 않은 집단(false positive), CES-D와 임상진단에서 모두 우울증상이 없는 집단(true negative)을 비교하였는데, 사회심리적 기능과 정신 건강 면에서 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사회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첫 번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세 번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관심의 초점이 되는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사회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정도가 세 번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특히 이들에게서 임상적으로 진단된 문제가 추후 발견되는 정도도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므로 CES-D에서 기준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우, 임상적인 우울 증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2) 취업상태

저소득층 여성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상태의 변화가 빈번하고 불연속성이 크다. 따라서 정태적인 접근만으로는 취업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당시 미취업 상태이며 동시에 지난 일년동안 일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조사대상의 취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1) 일차 후속연구 조사 당시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 취업하고 있으면 1의 값, 아닌 경우에는 0의 값을 주어 가변수하였고, (2) New Chance 프로그램 시작부터 일차 후속연구 사이의 18개월 동안 취업하여 일을 한 총 주간 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3) 취업과 우울 증세와의 관계를 검증한 단계에서는 취업한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우울 증세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각 분기별 취업여부를 가변수화하여 포함시켰다.

## 3) 기타 통제변인

먼저 심리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자존감과 내외통제성이 포함되었다. 자존감은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1점에서 5점의 응답범주를 갖는 리커트형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점수범주는 10-50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외 통제성은 Rotter (1966)에 의해 개발된 내외통제성 척도의 축약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1-5점의 리커트형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응답점수범주는 6-30점), 일반적으로 점수가 18점 이상은 내적 통제성향이 높고 외적 통제성향이 낮은 것, 18점 이하는 내적 통제성향이 낮고 외적 통제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여성가장들이 자존감과 내외 통제성향 점수가 일반 인구보다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준거 집단 내 비교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중간값 대신 전체집단의 척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낮은 자존감'과 '낮은 내적 통제성향'에 1의 값을 주어 가변수화 하였다.

인적 자원 및 가족관련 특성들은 New Chance 참여 당시 시점에서 조사되었다. 개인의 인적 자원 중 교육수준은 실제 학력수준(학년 기준)에 대한 검사인 Test of Adult Basic Education (TABE) 중 읽기 능력 파트의 점수를 통해 측정되었다. 건강상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와 '일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두 질문 중 한가지 이상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에 1, 아닌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초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고, 인종은 흑인과 히스패닉을 구분하여 가변수화하였다.

가족관련 특성 중 부모의 학력수준은 어머니,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졸업하였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하여 가변수화 하였다. New Chance 참여당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지, 남편 혹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 지 여부도 함께 살고 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주었다.

자녀수와 막내자녀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되었다.

조사대상의 취업여부와 취업기간, 우울 증세 여부는 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New Chance 참여 당시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9세이며, 평균 17세에 첫 출산을 하였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전체대상의 51%가 흑인이고 24%가 히스패닉 출신이다. 연구대

상자의 부모의 학력을 보면, 어머니가 최소 고등학교 졸업을 한 경우가 50%,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을 한 경우가 42%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거의 모두 고등학교 중퇴자들이다. 이들의 학력수준을 TABE(읽기 테스트)로 검사한 결과, 평균 중학교 2학년 수준(8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드러나듯이 New Chance 참여자들은 미국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며 취업을 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열악한 사회적 배경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의 수준에도 반영되고 있다. 평균 내외통제성 점수는 21점이며, 평균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40%이었고, 자존감의 평균 점수는 36점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756명)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b>처음 참여시</b>		
연령	18.98 (1.33)	16-22
첫 출산 연령	16.88 (1.35)	13-19
막내자녀 연령	1.21 (1.09)	0-7.7
자녀수	1.48 (0.72)	1-5
건강/장애 여부(1=건강문제)	0.02 (0.14)	0-1
흑인비율	0.51 (0.50)	0-1
히스패닉 비율	0.24 (0.43)	0-1
어머니 고등학교 졸업 (1=졸업)	0.50 (0.50)	0-1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 (1=졸업)	0.42 (0.49)	0-1
어머니와 동거 (1=동거)	0.34 (0.47)	0-1
배우자/남자친구와 동거 (1=동거)	0.11 (0.31)	0-1
최종 학년 수준 (TABE 점수)	8.24 (2.87)	1.9-12.9
내외 통제성 점수	21.38 (3.34)	11-30
21점 (평균값) 미만	0.40 (0.49)	0-1
자존감 점수	35.62 (6.35)	12-50
35점 (평균값) 미만	0.42 (0.49)	0-1
CES-D 점수	25.62 (7.98)	16-54
16점 (기준점) 미만	1.00 (0.00)	
<b>일차 후속연구 시</b>		
취업한 기간 (총 주간수)	9.76 (16.81)	0-72
현재 취업여부 (1=취업 중)	0.18 (0.39)	0-1
CES-D 점수	18.87 (11.01)	0-57
16점 미만	0.55 (0.50)	0-1



으로 전체 42%가 평균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평균 CES-D 점수는 26점이었다. 본 연구는 New Chance 참여 당시 우울 증세 경향(CES-D 16점 이상)을 보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외통제성 및 자존감 등 심리적 자원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평균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여성의 비율이 전체집단보다 높다. 참고로 전체집단(총 2079명)의 내외통제성 평균 점수는 22점이고 평균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34%, 평균 자존감 점수는 38점이고 평균미만은 28%였다.

처음 New Chance 참여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총 18%가 취업을 하고 있었고, 평균 취업한 주간 수는 9.8주였다.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이 기간동안 New Chance에서 실시한 직업훈련과 다른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과, 실제로 New Chance Demonstration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Quint et al., 1997).

일차 후속연구 때 평균 CES-D 점수는 18.9점이었고, 55%가 여전히 기준점인 16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New

Chance 참여 당시 우울 증세를 보이고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의 45%가 우울 증세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우울 증세가 완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취업기간과 현재 취업 여부

〈표 2〉는 총 취업한 기간과 현재 취업여부에 관한 중다회귀모델과 로지스틱 모델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인종으로서,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의 소수인구집단이 취업한 기간도 짧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소수 인구집단은 취업할 가능성이 낮으며, 취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유의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p < .10$ ), 몇몇 변수들이 조사대상인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읽기 능력수준으로 표출된 인지능력 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기간이 길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표 2〉 20대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

(총 756명)

관련변수	총 취업기간 (단위: 주)	현재 취업 중
	reg. coeff. (s.e.)	logit coeff. (s.e.)
낮은 내적 통제성향 (1=yes)	.12 (1.30)	-.34 (.21)
낮은 자존감 (1=yes)	.03 (1.29)	-.05 (.20)
최종 학년 수준	.39 (.23)+	.06 (.04)+
건강/장애 (1=yes)	-5.16 (4.16)	.68 (.56)
첫 출산 연령	-.56 (.53)	.02 (.08)
자녀수	-.99 (1.02)	-.08 (.17)
막내자녀 연령	-.70 (.62)	-.05 (.10)
어머니 고등학교 졸업 (1=yes)	.35 (1.31)	-.24 (.21)
아버지 고등학교 졸업 (1=yes)	2.30 (1.31)+	.13 (.20)
어머니와 동거 (1=yes)	-1.94 (1.35)	-.20 (.22)
배우자/남자친구와 동거 (1=yes)	-2.31 (2.05)	.17 (.30)
흑인	-2.88 (1.60)+	-.63 (.24)**
히스패닉	-3.87 (1.81)*	-.54 (.27)*
NC 실험집단 (1=yes)	.45 (1.29)	-.19 (.20)
상수	20.14 (10.59)	-1.35 (1.68)
모델 적합성	F(14, 741)=1.60+	LR $\chi^2(14)=27.02^*$

+  $p < .1$ ; \*  $p < .05$ ; \*\*  $p < .01$

교육수준도 취업기간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혹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한 기간이 길었다.

한편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은 취업기간과 현재 취업여부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특히 우울 증세를 보이고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심리적 자원이나 가족특성 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보고와는 달리 낮은 자존감이나 내적 통제성향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3. 취업과 우울 증세

취업기간과 현재 취업여부가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세 개의 로지스틱 모델이 테스트되었다. 취업기간을 포함시킨 첫 번째 모델에서는 총 취업기간이 우울 증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내외통제성과 자존감 등의 심리적 변인만이 일차 후속 연구 당시의 우울 증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취업여부를 포함시킨 두 번째 모델에서는, 현재 취업여부가 일차 후속 연구 당시 우울 증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 = -.67, se = .20, z = -3.40 p = .001). 현재 취업하

〈표 3〉 취업기간과 현재 취업여부가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

(총 756명)

관련 변수	우울 증세 모델 1	우울 증세 모델 2	우울 증세 모델 3
	logit coeff. (s.e.)	logit coeff. (s.e.)	logit coeff. (s.e.)
취업기간(총 주간 수)	-.004 (.004)	-	-
현재 취업여부		-.67 (.20)**	-
첫 번째 4분기 취업여부	-	-	-.06 (.32)
두 번째 4분기 취업여부	-	-	-.00 (.29)
세 번째 4분기 취업여부	-	-	.45 (.29)
네 번째 4분기 취업여부	-	-	-.66 (.27)*
다섯 번째 4분기 취업여부	-	-	.42 (.26)
여섯 번째 4분기 취업여부	-	-	-.46 (.23)*
낮은 내적 통제 성향 (1=yes)	.35 (.16)*	.32 (.16)*	.37 (.16)*
낮은 자존감 (1=yes)	.44 (.16)**	.45 (.16)**	.43 (.16)**
최종 학력 수준	-.02 (.03)	-.02 (.03)	-.02 (.03)
건강/장애 여부 (1=yes)	-.48 (.51)	-.39 (.52)	-.42 (.52)
첫 출산 연령	.02 (.07)	.03 (.07)	.03 (.07)
자녀수	.06 (.13)	.06 (.13)	.06 (.13)
막내자녀 연령	-.10 (.08)	-.11 (.08)	-.11 (.08)
어머니 고교 졸업 (1=yes)	-.16 (.16)	-.18 (.16)	-.14 (.16)
아버지 고교 졸업 (1=yes)	.02 (.16)	.02 (.16)	.01 (.16)
어머니와 동거 (1=yes)	.25 (.17)	.24 (.17)	.26 (.17)
배우자/남자친구와 동거 (1=yes)	.03 (.25)	.06 (.25)	.04 (.26)
흑인	.22 (.20)	.16 (.20)	.19 (.20)
히스패닉	.10 (.22)	.05 (.22)	.11 (.22)
NC 실험집단 (1=yes)	-.03 (.16)	-.05 (.16)	-.01 (.16)
상수	-.38 (1.30)	-.31 (1.31)	-.41 (1.32)
LR $\chi^2(20)$	30.21*	41.34***	41.0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고 있는 여성은 우울 증세를 경험할 odds ratio가 .51 ( $\exp^{-.67}$ )로서 취업하지 않고 있는 여성보다 우울 증세가 나타날 확률이 49% 정도 낮다.

이러한 결과가 혹시 취업으로 인한 가족수입의 증가로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차후속 연구 당시의 가족수입을 모델에 포함시켜보았다(표 3에 제시 안됨).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가족수입은 우울 증세와 부적적으로 연관되었으나 (coeff.=-.17, se=.0002, z=1.65, p=.09), 취업의 유의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coeff.=-.57, se=.20, z=-2.72, p=.006). 그러므로 취업이 우울 증세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수입의 증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현재 취업여부와 우울 증세가 같은 시기에 측정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를 각 분기별로 구분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모델 3). <표 3>에 제시된 바처럼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분기의 취업이 우울 증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취업과 우울 증세의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취업의 긍정적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고, 취업과 관련된 다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긍정적 효과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 외의 관련변수 중에는, 자존감과 내외통제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New Chance 참여 당시 자존감이 낮은 집단과 내적 통제 성향 점수가 낮은 여성이 18개월 후 우울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존감과 내외통제성이 우울 증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내외통제성 여부가 우울 증세와 취업의 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후속 검증을 하였다. 즉 New Chance 참여 당시 우울 증세가 있고 미취업 상태일 뿐 아니라, 자존감과 내외 통제성이 평균 점수 이하로 나타났던 총 17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같은 분석을 해 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표 4> 참조). 즉 취업기간은 우울 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현재 취업여부는 우울증세에 부적적으로 관련되었다. 그러나 조사

<표 4> 취업기간과 현재 취업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총 170명)

관련 변수	우울 증세 모델 1	우울 증세 모델 2
	logit coeff. (s.e.)	logit coeff. (s.e.)
취업기간(총 주간 수)	-.012 (.01)	-
현재 취업여부	-	-1.62 (.46)**
최종 학력 수준	-.05 (.06)	-.00 (.06)
건강/장애 여부 (1=yes)	-.20 (.130)	-.48 (.130)
첫 출산 연령	-.15 (.16)	-.15 (.17)
자녀수	.01 (.29)	.02 (.30)
막내자녀 연령	-.10 (.19)	-.06 (.20)
어머니 고교 졸업 (1=yes)	.29 (.39)	.20 (.40)
아버지 고교 졸업 (1=yes)	.21 (.39)	.17 (.40)
어머니와 동거 (1=yes)	-.37 (.37)	-.38 (.38)
배우자/남자친구와 동거 (1=yes)	-.63 (.53)	-.54 (.56)
흑인	-.32 (.46)	-.28 (.48)
히스패닉	-.56 (.49)	-.52 (.51)
NC 실험집단 (1=yes)	-.22 (.38)	-.35 (.40)
상수	4.36 (3.19)	4.18 (3.28)
LR $\chi^2(20)$	7.68	19.78

대상자의 수가 적어 모델적합성테스트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현재 취업여부는 우울 증세와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그러나 New Chance 참여 당시에 측정되었던 변수 중에는 심리적 자원이 되는 자존감과 내외 통제성 외에는 일차후속 연구시의 우울 증세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존감과 내외 통제성 여부도 우울 증세와 취업의 관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이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적 방향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횡단적 자료들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제한점으로 발견된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에서의 우울 증세를 비교하였다. 특히 처음 시점에서 이미 우울 증세를 보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1년 6개월 후, 이들이 아직도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New Chance 참여 당시 취업하지 않았었고 우울 증세를 보이던 여성들 중 18%가 1년 6개월 후에는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45%가 우울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애초에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New Chance Demonstration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New Chance 프로그램이 포괄적인 복지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직업훈련과 취업준비가 프로그램 핵심요소 중 하나로써, 취업을 통한 자립은 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취업과 우울 증세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New Chance 프로그램이 취업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포함시켰던 변수 중에 유의하게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대상자의 인적 자

원(학력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수준, 그리고 인종이었다.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고 취업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이들에게도 교육수준 또는 인지능력은 취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는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들이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New Chance에 참여한 대상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저소득층이며, 복지수당을 받고 있었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으며, 십대에 출산을 경험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울 증세와 취업경험이 비슷한 여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의 조건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슷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출신은 취업하기가 더 어렵고, 취업을 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본 연구에서 초점이 되는 분석결과는,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취업기간과 취업여부가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들이다. 총 취업기간은 우울 증세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현재 취업여부는 우울 증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기 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최근의 취업만이 우울 증세에 유의한 부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 후속연구 당시의 가족수입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취업으로 인한 가족수입의 증가가 취업의 부적 영향을 매개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님을 시사한다. 취업은 가족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 연결되는 통로가 되며, 사회관계망을 넓히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도태이론보다는 사회적 원인 이론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서 발견되는 우울 증세가 개인적 인성특성이나 유전적 조건에 기반한 결과라기보다는 생활 환경 및 삶의 사회적 여건에 기반한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빈곤이나 실직의 원인이 된다고보다는 실직이나 빈곤이 정신건강 문제에 원인이 되거나 선행됨을 보여준다. 오랜 빈곤, 실업상태, 사회적 차별 등에서 비롯되는 우울 증세는 취업,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개입으로 호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반가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활동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업자체가 곧 삶의 조건 향상 및 복지 증진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저임금, 불연속적인 고용상태, 보험 등의 직업상의 혜택 결여 등 취업의 제반 조건이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고용이 불안하고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직업기술이 축적될 가능성이 낮고, 보다 나은 직업으로 수직 이동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취업이 우울 증세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실직 후 6개월 이내의 재취업은 우울 증세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으나 6개월 이후의 재취업은 그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바 있다(Ginexi et al., 2000). 이는 실직한 기간이 오래되어 경제적, 심리적 문제가 누적되는 경우 재취업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정한 취업지위가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 증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1년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수집된 패널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장기적 영향과 단기적 영향을 구분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간동안 관찰된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 및 역동성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이 십대 미혼모를 포함한 청년층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나이가 많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연구문제로 남는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나 취업률은 여성가

장의 연령 및 가족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취업과 우울 증세의 관계도 연령이나 가족 주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취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 나라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집중되어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전체 여성가구주의 70% 이상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집중되어있다(통계청, 2000). 이는 여성가장이 되는 주된 경로가 미국의 경우 이혼과 혼전(또는 혼외)출산인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사별과 이혼이 주된 경로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통계청, 2000).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취업 및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박영란, 황정임, 2002). 빈곤의 여성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여성특유의 불연속적인 취업경력, 자녀양육 부담, 성별 비대칭 노령인구 등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현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의 복지와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히 자활지원사업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동시에 이들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정책이 된다. 자활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연령과 가족주기에 맞는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을 마련하고 취업을 뒷받침하는 보조 복지정책이 수반되어야한다. 특히 자활지원사업이 단순한 제 3섹터에서의 취로나

공공사업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실제 시장에서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자의 70% 이상이 저소득층 여성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지원사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자활사업에의 참여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강남식·김수현·백선희, 2002). 자활 사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연령, 학력수준, 직업기술, 건강 등의 인적 자원이 열악하여 특별한 직업훈련과 정책서비스가 없는 유망한 자활직종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강남식 외, 2002).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개발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김태홍, 2003).

또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여성의 취업에는 자녀 양육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취업을 장려하고, 여성 가장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자녀세대에게도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녀를 대상으로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에게는 적절한 공공 보육사업이,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여성가장들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공부방 지원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여성가장의 취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준다는 측면 뿐 아니라, 이들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으며(김태홍, 2003),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의 결핍되기 쉬운 발달상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에게 취업이 우울 증세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취업이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됨을 시사한

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들의 경우, 취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력 향상과 정신건강을 통해 자녀세대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의 취업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취업을 돕는 것이 쉽지 않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은 더 더욱 쉽지 않은 정책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자활사업에 보다 많은 여성가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정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취업안정성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남식, 김수현, 백선희(2002).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개발. 한국여성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경신, 김오남(1998).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6(2), 19-34.
- 김태홍(2003).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정책포럼(한국여성개발원)* 1, 11-14.
- 박정희, 유영주(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119.
- 박영란, 황정임(2002). 여성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성혜영, 조희선(1999). 실직가장의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81-304.
- 신수아, 육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29-141.
-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

- 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정순희(200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취업중단 의사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3), 35-45.
- 조유현(1998). 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6(11), 119-218.
- 최규련(1999).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실직자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리학회지*, 17(3), 47-61.
- 최규련(2000). 한국 농촌여성의 심리적 복지수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93-118.
- 통계청(2000). 행정구역 시도/세대별 구성/가구주의 연령별 여성가구주 가구. 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nso.go.kr>)
- Danziger, S., Corcoran, M., Danziger, S., Heflin, C., Kalil, A., Levine, J., Rosen, D., Seefeldt, K., Siefert K., Tolam, R. (2000).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In R. Cherry & W. M. Rodgers (eds.), *Prosperity for all? The economic boom and African America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ohrenwend, B. P., Levav, I. ShROUT, P. E., Schwartz, G. N. Link, B. G., Skodol, A. E., & Stueve, A. (1992).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iatric disorders: The causation-selection issue. *Science*, 255, 946-952.
- Downey, G., & Coyne, J.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Ennis, N. E., Hobfoll, S. E., & Schroder, K. E. E. (2000). Money doesn't talk, it swears: How economic stress and resistance resources impact inner-city women's depressive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149-173.
- Folk, K. F. (1996). Single mothers in various living arrangements: Differences in economic and time resourc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5(3), 277-292.
- Ginexi, E. M., Howe, G. W., & Caplan, R. D. (2000). Depression and control beliefs in relation to reemployment: What are the directions of effect?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3), 323-336.
- Gotlib, I. H.,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5). Symptoms versus a diagnosis of depression: Differences in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90-100.
- Greenwell, L. Leibowitz, A., & Klerman, J. A. (1998). Welfare background, attitudes, and employment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75-193.
- Hofferth, S. L., Smith, J., McLoyd, V. C., & Finkelstein, J. (2000). Achievement and behavior among children of welfare recipients, welfare leavers, and low-income single mothers. *Journal of Social Issues*, 56, 747-774.
- Holmes, B. H., & Werbel, J. D. (1992). Finding work following job loss: The role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29(1), 22-29.
-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 (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 1409-1423.
- Jayakody, R., Danziger, S., & Kessler, R. C. (1998). Early-onset psychiatric disorders and male socioeconomic status. *Social Science Research*, 27, 371-387.
- Kalil, A., Schweingruber, H. A., & Seefeldt, K. S. (2001).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701-723.
- Kessler, R. C. (1982). A disaggregation of the

-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752-764.
- Kessler, R. C., House, J. S., & Turner, J. Blake. (1987). Unemployment and health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51-59.
- Parry, G. (1986). Paid employment,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working-class moth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193-208.
- Polit, D. F., London, A. S., & Martinez, J. M. (2001). The health of poor urban women: Findings from the project on Devolution and Urban Change. Executive Summary. MDRC.
- Quint, J. C., Bos, J. M., & Polit, D. F. (1997). Final report on a comprehensive program for young mothers in poverty and their children. Executive Summary. MDRC.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 (No. 609).
- Taylor, R. D., Roberts, D., & Jacobson, L. (1997).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in African American mo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436-446.
- Turner, R. J., Sorenson, A. M., & Turner, J. B. (2000). Social contingencies in mental health: A seven-year follow-up study of teenag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777-791.
- Ulbrich, P. M., Warheit, G. J., & Zimmerman, R. S. (1989).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131-146.
- Vinokur, A. D., Schul, Y., Vuori, J., & Price, R. H. (2000). Two years after a job loss: Long-term impact of the JOBS program on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 32-47.

(2003년 2월 27일 접수, 2003년 7월 3일 채택)